

[종합·해설]

10·25 재보선 후보 인물·정책 검증

(1) 해남·진도 국회의원

“관광허브 육성” 한목소리... 공약 차별성 없어

오는 25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두 곳 중 하나에서 여야 각 정당의 화력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에서 드러난 표심이 향후 정계계편, 나아가 내년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각 당은 후보에 대한 지원은 물론 복핵 등 정국 이슈들에 대한 입장과 정책, 정권 창출 비전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당초 10여명이 넘는 후보들이 거론됐으나 최종 공천 및 후보 등록 결과 해남·진도 지역에는 박양수, 한나라당 설철호, 민주당 채일병 후보의 3파전으로 압축됐다.

이정일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된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다 무소속 출마를 검토해 왔던 김봉호 전 의원과 이정일 전 의원의 부인 정영희씨가 뜻을 접음으로써 초반 판세는 채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한 듯 보였다.

하지만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지난 12일 무소속 인척이 출마회견장에서 금품을 돌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일파반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낸 사람이 금품을 돌리는 일들을 방지하거나 조장한 것은 후보 자격을 스스로 상실한 것”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각 후보들은 S프로젝트(서남해안 개발계획)와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래저도시 건설)의 핵심지역인

Table with 3 columns: Candidate Name (박양수, 설철호, 채일병), Party (한나라당, 민주당), and Key Policy Points (S-Project, J-Project, etc.)

박양수 후보 “S프로젝트 특별법 제정·추진 기구 설치”

설철호 후보 “월동 배추 브랜드화 농어업 경쟁력 강화”

채일병 후보 “국비 5천억원·국내외 투자 5억달러 유치”

해남을 관광허브로 육성하고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교육여건 및 복지개선에 힘쓰겠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후보간 공약 차별성은 보이지 않는다.

제 16대 국회의원과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을 역임한 열린우리당 박양수 후보는 “2년도 안되는 짧은 임기동안 해남·진도 발전을 위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후보가 과연 누구냐”며 여당 후보로서 지역발전 적

임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박 후보는 “공기업 사장을 역임하면서 해외 무역과 자원개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 CEO로서도 능력을 검증받았다”며 “기필코 당선되어 나후된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정권 재창출의 선봉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해남·진도를 거점으로 한 해양관광허브 건설 및 서남해안권 관광벨트 추진, S프로젝트

특별법 제정과 정부 추진기구 설치, 농촌복지사회 시범지구 지정, 77번 국도 확장 등 교통망 확충, 김가공유 통센터·해양생태관·갯벌박물관 건립 등을 내걸었다.

민주당 채일병 후보는 “정통민주 세력인 민주당이 제도약과 전국 정당화로 차기 대선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그러한 민주회복의 대장정을 국토의 첫머리인 해남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행시(14회) 출신으로 행자부 소청심사위원과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한 뒤 대불대 석좌교수를 맡아온 그는 “30여년의 공직생활 동안 쌓아온 능력과 경험, 각계 인맥을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 송두리째 쏟겠다”고 강조했다.

채 후보는 해남·진도발전 5개년 계획 수립과 함께 2010년까지 ‘국비 5천억원, 국내외 투자 5억달러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남해안 관광벨트 추진과 교육발전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한 인재 양성, 친환경농업 특구 지정, 해진 나눔복지공동체 실현 등도 약속했다.

(사)한국에총광주시연합회 사무처장과 호남교육신문사 사장을 역임한 한나라당 설철호 후보는 “J프로젝트와 F1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유치에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 지역발전을 앞당기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설 후보는 이와 함께 섬 관광자원화(조도클러스터)로 체류형 관광지 조성, 해남 김 명품화 및 월동배추 브랜드화를 통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들 3명의 후보는 최근 해남군선관위에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실천 협약식’을 갖고 공경 경쟁을 다짐하기도 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지상군 페스티벌’ 찾은 국방위 의원

16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대회의실에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가 열려 계룡대 인근 지상군 페스티벌 행사장을 찾은 김승재(오른쪽), 김진표 의원이 K1A 1 전차에 탑승해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북 5~6년 후 핵 40~130기 생산”

한나라 김태환 의원 주장

북한이 영변의 원자로를 이용, 향후 5~6년 안에 약 40~130기의 핵무기에 쓸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16일 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국제안보연구원(ISIS) 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보고서가 북한의 성명, 국제원자력기구(IAEA) 자료, 위성사진, ISIS 자체 전문가 분석, 그리고 미국, 일본, 한국 측 정부 관리와 전문가 정보를 토대로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초 건설을 재개한 영변 원자로의 완공 시점인 향후 5~6년 후 먼 지금까지 이 곳에서 만든 플루토늄 양(5~7kg)보다 약 10배 많은 핵물질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원자로의 완공 시점인 향후 5~6년 후 먼 지금까지 이 곳에서 만든 플루토늄 양(5~7kg)보다 약 10배 많은 핵물질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이 보고서가 북한의 성명, 국제원자력기구(IAEA) 자료, 위성사진, ISIS 자체 전문가 분석, 그리고 미국, 일본, 한국 측 정부 관리와 전문가 정보를 토대로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아리랑 2호 복핵 사진 한 장도 못찍어. 우리당 강성종 의원.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아리랑2호는 대체로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11시께 두 차례 한바탕 상공을 통과한다”며 “아리랑2호는 북한이 핵실험했다고 발표한 9일 오전 10시35분 직후인 11시께에도 한바탕을 통과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남한 쪽을 촬영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0·25 재보선 현상. 시 광주MBC 공개홀에서 녹화돼 22일 오전 7시10분부터 방송된다. 한화갑 대표, 해남·진도보선 지원. 박양우 후보, 안좌·팔금서 유세. 화순 선관위, 최다투표가족 시상.

광주시 의료안내. 아름다운 의료문화를 열어가려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병원. Includes sections for 病院, 內科, 形成外科, 産婦人科, 이연안과, 耳鼻咽喉科, 皮膚泌尿科, 皮膚科, 皮膚科, 皮膚科, 皮膚科.